



(사)한국포장협회

제287차 이사회

제4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회원 가입 논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는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8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 41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보고와 제42기 교육 일정, 2024년 해외 전시 참가 및 참관 보고, 신입회원 가입 심의 등이 이루어졌다.

제4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주간 진행하며 마지막 종합시험을 거쳐 수료증을 수여하게 된다.

2024년 해외 전시 참가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장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10개 업체 11부스)하고, 도쿄팩, 시카고 팩 등 유망전시회에 참관단을 파견한다.

또한 10월 포장인 포럼을 10월 30일 협회장배 골프대회를 마치고 개최하기로 했다.

신입회원 가입 심의에서는 연포장 업체인 창성특수포장(대표 전운식), 접착제 전문업체인 (주)하이캠(대표이사 송명호)에 대한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는 124개로 늘어났다.

협회의 288차 이사회는 9월에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 제287차 이사회

(사)한국포장협회

제4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강생 모집

8월 26일부터 11주간 교육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창순)는 제 4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4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오는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주간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7월 29일부터 받는다.

신청서는 한국포장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opa.co.kr) '교육일정 및 신청' 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협회 이메일(주소: kopa1991@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이미 개발된 11개 과목의 교재를 통해 수강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매주 발송되는 문제지를 작성하여 평가받게 된다. 문제지는 1주일 단위로 각 교육생의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평균 60점 이상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지류, 플라스틱, 유리, 목재, 캔, 디자인, 마케팅, 기계, 포장과 법률 등 포장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으로 포장에 입문하거나 현장의 재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육 과정이다.

협회는 전과목 평가가 완료된 후 합격자에 한하여 '포장기술관리사'증을 수여하고 있다.

포장분야 유일의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총 3,18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매 기수마다 내용을 보완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포장협회(02-2026-8655)로 문의하면 된다.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

회장배 대회 일정 변경

김창순 회장 이글때 전달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회장 김보철)가 지난 7월 24일 모임을 갖고 2024년 회장배 대회 일정 변경 등을 논의했다.

회장배 대회는 매년 10월 넷째 주 수요일 진행했으나 올해에는 10월 넷째 주가 협회 주관 튀르키예 이스탄불 전시회와 도교백의 참가와 참관 일정과 맞물려 한 주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골프동우회가 협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회원 간 적극적인 교류와 참여에 노력하고 2025년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사항도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골프동우회 7월 모임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6월 이글을 기록한 김창순 협회장에 대한 이글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우승 안현숙 대영기업 이사, 니어리스트 박동명 엠더블유코리아 대표, 룡기스트 강성공 삼원기업(주) 회장, 행운상 김창환 이엔케이엔지니어링 대표가 차지했다. 협회 골프동우회 8월 모임은 28일에 있으며 참가 신청은 협회 사무국(02-2026-8655)으로 하면 된다.

(주)한국알미늄

중국 이차전지 시장 공략...창저우시 생산기지 건설

김창호 대표, "최고 수율과 효율성"... 중국 배터리 시장 도전



▲ (주)한국알미늄-중국창저우시 MOU체결 모습

연포장 전문업체인 (주)한국알미늄(대표이사 김창호)이 중국 이차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주)한국알미늄은 중국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시장에 진출해 앞으로 생산기지 건설·합작사 설립 등을 계획 중이다. (주)한국알미늄은 지난 6월 19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와 이차전지용 셀파우치·접착제 생산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EV 기업은 주로 저용량 LFP 배터리를 사용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세계 최대 점유율을 확보했다.



중국 내 배터리 과잉 생산과 미국 IRA 법에 따른 수출 제약,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로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 전환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알미늄은 중국 시장 특수성과 앞으로 시장 변화를 고려, 창저우시 금탄경제개발구에 생산기지 건설·합작사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탄경제개발구는 신의약 산업과 이차전지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한국알미늄은 사업 연착륙을 위해 생산 품목을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기존 중국 CFDA(중국식품의약품관리총국)로부터 인증 받은 제약포장지 사업으로 확장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김창호 대표는 “금탄경제개발구에 건설하는 공장은 가장 발전된 설비의 공장이 될 것이며 최고의 수율과 효율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국알미늄은 지난 1987년 설립 이후 각종 연포장용, 산업용, 건축재용, 자동차와 전기·전자 제품용 알루미늄 호일과 식품, 산업, 생활, 제약용 포장지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시작한 이차전지용 소형·중대형(156 μ m) 알루미늄 파우치 제품에 대한 개발을 완료해 IT, 자동차·ESS 시장 진입을 위한 양산 체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이탈리아 Goglio사와 MOU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중국 창저우시와 투자협약을 발판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중국에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알미늄은 (주)베이스 계열사인 상장회사 (주)까뮤이앤씨가 90.5%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다.

제이케이첨단소재(주)

5 Layer MDO CPP Film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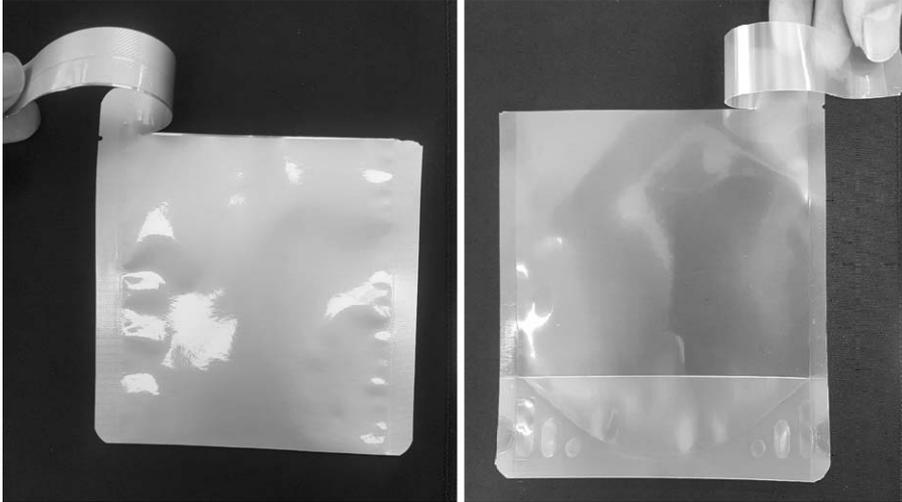
직선컷(Straight cut) CPP Film 국산화 성공으로 플라스틱 포장 디자인에 새 기능 제공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MDO(일축 연신 필름:machine direction oriented) CPP 필름을 제이케이첨단소재(주)에서 6월 국산화에 성공하여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산화에 성공한 MDO CPP 필름은 5 layer로 이뤄진 일축 방향 연신 필름이다.

제이케이첨단소재(주)는 CPP 필름을 일축으로 연신하면 분자 구조가 linear하게 배열되면서 식품 포장에서 개봉 시 일직선으로 쉽게 잘리기 때문에 파우치를 개봉 할 때 잘 찢어지지 않아 내용물을 쏟거나 비스킷 같은 약한 과자류는 개봉시 부서져 불편했던 경험을 일거에 해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적으로 필름의 stiffness, toughness, Haze, Gloss, barrier 성 등 여러 물성도 같이 향상 되어 기존 CPP 필름 두께를 낮추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친환경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시점에 MDO 필름은 기존의 CPP 필름으로 할



▲ 제이케이첨단소재(주)가 개발한 CPP MDO 필름 파우치. (왼쪽부터)알루미늄파우치, 투명파우치

수 없었던 고속인쇄도 가능하며 모노 재질로 디자인 할 수 있는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이케이첨단소재(주)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하여 사용한 일본 Toyobo Mono layer MDO 필름은 너무 고가여서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인 레토르트 식품 포장

에 주로 사용 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양한 그레이드의 제품이 없어 시장 확대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제이케이첨단소재(주)의 MDO 필름의 국산화로 다양한 제품(연신필름두께: 20 μ m~100 μ m, 무연신 필름두께:20 μ m~300 μ m 색상: 투명,화이트) 공급이 가능해져 향후 식품포장의 시장 확대 뿐 아니라 뷰티, 제약 시장으로도 빠른 속도로 확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서식품

환경부 ·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 MOU 체결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환경부 ·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월 1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순 동서식품 부사장과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커피 캡슐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서식품은 커피 캡슐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용품을 제작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커피 캡슐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환경부는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인 커피 캡슐 회수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 동서식품이 환경부, 우정사업본부와 17일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부터 카누 알루미늄 캡슐 재활용 프로그램인 '카누와 함께 그린(GREEN) 내일'을 운영하고 있다. 카누 캡슐 커피를 마시고 남은 알루미늄 캡슐을 수거한 후 알루미늄과 커피 박(커피 찌꺼기)으로 분리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을 통한 수거만 가능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우체국 물류를 통한 오프라인 수거도 가능해진다. 카누 바리스타 캡슐을 음용한 소비자가 사용한 캡슐을 전용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재활용 처리장으로 회수되는 방식이다. 동서식품 박영순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커피 캡슐 재활용 프로그램 '카누와 함께 그린(GREEN) 내일'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화학

특수가스 매각 우선협상자에 스틱·IMM 컨소시엄

매각가 1조 3000억 원

효성화학은 특수가스 사업 매각을 위해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아이엠애프라이빗에쿼티(IMM P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11일 공시했다.



HYOSUNG

▲ (주)효성그룹 로고

매각 대상은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 지분 100%이며, 매각가는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세부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서 이물질 세척에 쓰이는 삼불화질소(NF3) 등을 생산한다.

연산 8천t 규모 생산 설비를 갖췄으며,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 SK스페셜티와 2위 중국 페릭에 이어 3위다.

한국컨테이너플

안성에 콜드체인 전용 물류센터 오픈

주요 소비시장까지 빠른 접근성 확보...신선 풀필먼트 서비스 강화 목표

한국컨테이너플(이하 KCP)이 경기도 안성에 콜드체인 전용 물류센터를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개소식에는 서병륜 로지스올 회장, 서지영 KCP 대표, 이연승 KCP CCO, 손영선 KCP CBO 외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콜드체인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이번에 오픈한 한국컨테이너플 동안성 콜드체인센터

KCP 동안성 콜드체인센터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73번지 일원에 건축된 연면적 약 29,867㎡ 규모의 최첨단 저온 물류센터다. DAS(물류분배시스템)와 자동 입출고 시스템 및 특화된 WSM 연동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보관, 실시간 재고관리,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고 내부는 11m×11m 표준 모듈을 적용해 파렛트 보관에 최적화되어 있다. 층고 9m 높이로 파렛트 랙을 최대 5단까지 설치해 적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40피트 차량까지 접안 가능한 도크시설과 넓은 회차 공간을 갖추어 편리한 접근 및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다.

지리적 위치도 물류센터의 역할을 하기 적합하다. 중부선 일죽 IC부터 5km 이내 위치로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주요 권역 및 동남권 물류센터까지 빠른 접근성을 확보했다. 물류센터가 밀집한 용인, 이천 및 평택까지는 한 시간 안에 수배송이 가능하다.

KCP는 이번 개소한 동안성 콜드체인센터를 거점으로 신선식품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혜원, 음성, 진천 등 대기업 식품 제조공장 인근에 위치해 저온 물류센터 니즈가 높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P 관계자는 “KCP 동안성 콜드체인센터는 넓고 효율적인 공간, 전략적 위치,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저온 물류센터”라며 “고객과 협업해 콜드체인 물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최적화하는데 있어 최고의 솔루션과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온

100% 국산 쌀로 구운 ‘뉴룽지’ 출시

밀가루 없는 스낵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제격



▲ 오리온에서 새로 출시한 쌀과자 ‘뉴룽지’

오리온(대표이사 이승준)은 100% 국산 쌀로 만든 쌀과자 ‘뉴룽지’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리온은 쌀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한편,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뉴룽지는 일반적인 스낵과 다르게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웠으며, 100% 국산 쌀을 사용해 밀가루 없는 스낵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이다. 뉴룽지를 먹고 자란 중장년층에는 익숙함을, MZ세대들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명은 특징을 반영해 ‘새로운’을 뜻하는 영어 단

어 'New' 와 '누룽지' 를 합성해 '뉴룽지' 로 위트 있게 표현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뉴룽지는 100% 국산 쌀과 오리온 글로벌연구소만의 제품 개발 기술력으로 더 가볍고 바삭한 식감과 달콤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룬 쌀과자”라며 “누룽지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친근하게 재해석한 만큼 폭넓은 소비층에게 인기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룽지는 오리온농협 밀양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리온농협은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오리온과 농협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마켓오네이처 오!그래놀라 및 오!그래놀라 바’ 를 비롯해 ‘태양의 맛 썸’, ‘치킨팝’ 등 다양한 제품에 연간 1000톤에 달하는 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 뉴룽지 또한 100% 국산 쌀로 만드는 만큼 쌀 소비 증대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원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p>두산전자기기 1986년 8월 11일 38주년</p>	<p>삼흥산업(주) 1982년 8월 20일 42주년</p>
<p>(주)신명팩 2003년 8월 1일 21주년</p>	<p>(주)씨오텍 2001년 8월 15일 23주년</p>
<p>에스원피앤피(주) 2008년 8월 5일 15주년</p>	<p>(주)유상 1976년 8월 20일 48주년</p>
<p>일진알텍(주) 2007년 8월 1일 17주년</p>	<p>일진팩 2009년 8월 11일 15주년</p>
<p>(주)태방파텍 1998년 8월 17일 26주년</p>	<p>(주)한두패키지 2000년 8월 1일 24주년</p>

환경부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

면세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12개 면세점에서 발생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2023년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2023년) 9월 15일 한국면세점협회 및 12개 면세점과 비닐재질 쇼핑백, 완충재(일명 뽁뽁이)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유통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한 12개 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대비 매출액 기준 96.2%, 매장 수 기준 82%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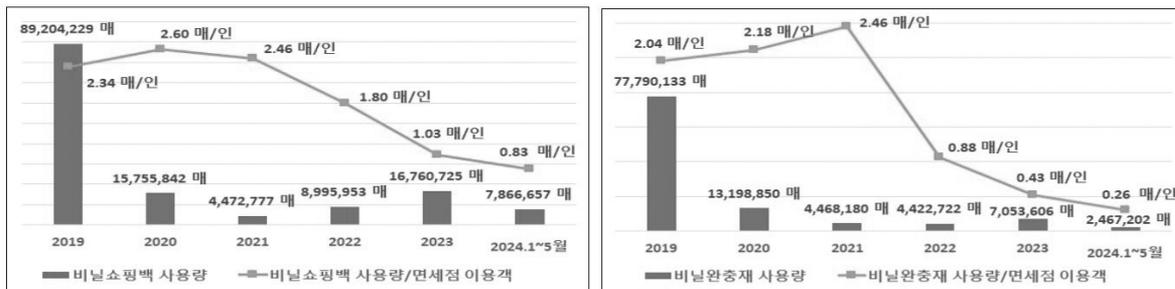
협약한 12개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제주관광공사, 경북궁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디엠면세점, 부산면세점, 시티면세점, 울산면세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 2023년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1,676만여 개로 2019년 8,920만개 비해 약 81%가 줄었다.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중에 비닐쇼핑백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해도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무엇보다 면세점 이용객 1인당 사용량이 2019년 2.34매에서 2020년 2.6매로 다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2024년) 1~5월 기간 중에는 1인당 사용량이 0.83매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면세점 업계가 비닐쇼핑백을 종이쇼핑백으로 바꾸고 불가피한 경우(무거운 면세품을 운반하거나 밀봉용 봉투 등 종이쇼핑백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 사용)에만 비닐쇼핑백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닐완충재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7,779만개가 사용된 비닐완충재는 2023년



▲ (왼쪽부터)비닐쇼핑백 사용량 및 1인당 사용량, 비닐완충재 사용량 및 1인당 사용량

705만개로 감소했다. 1인당 사용량 역시 2019년 2.04매에서 올해(2024년) 1~5월에는 0.26매로 87% 줄었다. 이는 면세점 업계가 관행적으로 쓰던 비닐완충재를 줄이기 위해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에는 비닐완충재를 쓰지 않는 등 최대한 사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회용 완충가방 또는 종이완충재를 사용하거나, 면세품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 대신 견고한 다회용 상자를 적극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면세점 업계는 낙하방지용 물류 포장재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이번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협약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비닐쇼핑백을 사용하거나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비닐 재질 완충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점 업계는 자발적 협약을 적극 이행하며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다양한 업종과 협업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자율감량의 효과는 즉각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위도 훨씬 폭 넓다”라면서 “자발적 협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 87%까지 줄인 면세점 업계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베트남에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수출 박차

EPR제도 정보 공유 · 베트남 EPR 조직 운영 등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베트남 국가EPR위원회와 ‘순환경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일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이번 협약은 같은 날 개최된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 협력 의제인 플라스틱 오염문제



▲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왼쪽 두 번째)와 판 뚜언 흥 베트남 국가EPR위원회 사무국장(왼쪽 세 번째) 등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결 및 국제적인 순환 경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과 판 뚜언 흥 베트남 국가EPR위원회 사무국장은 베트남에 EPR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EPR제도 정보 공유, 베트남 EPR 조직 운영지원, 제도 이해관계자를 위한 시스템 관리, 현지 인력 교육 등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포장재를 대상으로 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전기·전자제품, 2027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EPR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의 EPR제도 20년 운영 경험이 베트남에 체계적으로 전수되어 베트남 EPR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EPR 제도의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다”라며 “공단은 필리핀 등과 진행 중인 EPR 분야 해외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한국의 제도를 수출하는 등 글로벌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MOU

“페트병에서 페트병(BtoB)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의 모범 기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환경부, 먹는물·음료·병입수돗물 업계 9개사, 한국환경공단, 한국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스파클, 동아오츠카, 산수음료, 서울우유협동조합, 매



▲ 재생원료사용 PET병 제작 공정

일유업, 서울 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사는 국내에서 배출된 무색 페트병으로 재탄생된 재생원료(펠릿)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식품용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유통지원센터·공단·

공제조합은 9개사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된 먹는물·음료 및 무색페트병에 대한 품질 등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지원센터는 성형 후 제품(프리폼)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데 모니터링은 프리폼 제작공정에서 불량유형 및 불량률 등 제품의 품질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페플라스틱에 대해 재생원료를 의무화하고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대해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환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를 포함한 13개 기관·생산자가 1년간 협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페트병에서 페트병(BtoB)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ImDG 주식회사 위험물 국제운송 업무협약

“사고예방, 인명안전 확보 및 환경보호 등 효과 기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상문 원장)은 ImDG주식회사(박만 대표)와 지난 2024년 6월 11일 두 단

체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회의실에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업에는 양 기관이 위험물 국제 해상과 항공 운송의 물류안전을 위한 협업을 통하여 사고예방, 인명안전 확보 및 환경보호 등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두 단체는 다년간 축적한 다양한 해상-항공 위험물 운송, 포장, 교육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문지식 및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직원의 교육·훈련 실시, 해외사업 진출 시 협업·지원 및 위험물 수출입 기업에 대한 해상-항공 상담안내와 지원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화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1989년에 설립된 기관이며, ImDG 주식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되어 위험물 항공운송을 수행하는 특화된 전문업체로 이번 협약식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이상문 원장은 “위험물 수출입 업체들에게 협업을 통하여 신속하고 고품질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제공하고, 다반사로 발생하는 위험물운송 규정 위반으로 인한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협약식은 다각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ImDG 주식회사 박만 대표도 “해상과 항공 위험물 전문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상문 원장)과 ImDG주식회사(박만 대표)간 업무협약식

국제운송의 전문성 및 기술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키면, 대내외 신뢰성과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더 큰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 아템페어

(주)씨오텍 참가

나노코리아 등 연계

2024 아템페어(접착·코팅·필름)가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4, 5홀)에서 열렸다.



▲ 아템페어 2024에 참가한 (주)씨오텍 부스

아템페어는 나노코리아, 레이저,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전시로 구성되어 350개사 700부스가 마련됐다.

협회 회원사인 (주)씨오텍(대표이사 김영배)은 코팅장비를 출품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전시기간동안에는 한국접착코팅필름협회 기술세미나, 친환경소재 산업화 전략 포럼, 2D메터리언 세미나 등이 동시 진행돼 기술 경연도 진행됐다.

아템페어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다.

2025년에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 1전시장(4, 5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내 인쇄전 'K-PRINT 2024'

8월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4일간 개최

“총 275개사 850부스 규모”

국내 최대 인쇄인의 축제인 'K-PRINT 2024'가 오는 2024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총 275개사 85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한국이앤엑스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K-PRINT 2024는 국내 유일의 인쇄관련산업 통합 전시회로서 국제인쇄산업전시회(KIPES)를 비롯하여 한국레이블전시회(K-Label), 한국패키징전시회(K-Pack),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K-Digital Print), 한국텍스타일전시회(K-Textile), 한국사인·광고전시회(K-Sign&AD)를 포함한다.

이번 K-PRINT 2024는 급변하는 인쇄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쇄, 패키징, 라벨, 텍스타일, 사인 산업의 새로운 융복합 기술과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인쇄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인쇄 기술과 ESG 흐름의 지속 가능한 패키징 & 라벨 솔루션, 패키징 디스플레이 솔루션, 커스텀 의류 인쇄를 위한 전사 프린터 및 필름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확대되는 옥외 광고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프린팅 관련 기업이 다수 참가하여 인



▲ 'K-PRINT 2024'가 오는 2024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총 275개사 85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쇄산업의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활용되는지 전시장 현장에서 라이브 데모를 시연한다. 아울러 K-PRINT 사무국은 실질적인 구매 바이어 유치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 활동은 물론, 지역 인쇄 조합 및 단체 등 지역 바이어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에서 KINTEX 전시장을 왕복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ECO-PRINT, 각양각색의 친환경 제품 선보여

글로벌 ESG 트렌드가 반영된 인쇄 산업의 친환경 제품 및 기술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참여업체 부스에 “ECO-PRINT” 배지를 표기하여 관련 전시품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재생 불가능한 플라스틱 소재의 봉투를 대신할 방수기능성 종이봉투, Vegan 친환경 인증 열전사 필름, 무라벨 직인쇄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이저 프린터 등도 소개한다.

‘K-PRINT 2024’ 기념 정부포상·이사장상·특별공로상 시상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인쇄산업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포상(장관상), 한국인쇄진흥재단 이사장상, 특별공로상을 처음으로 수여한다.

브랜드 디자인 트렌드 및 글로벌 인쇄산업 동향을 볼 수 있는 세미나 개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시기간중 KINTEX 제2전시장 3층 세미나장에서는 디자이너와 브랜드,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자인 사례와 콘텐츠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세미나와 글로벌 인쇄산업 동향과 국내 인쇄 산업 표준 로드맵을 볼 수 있는 ISO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세미나가 동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K-PRINT 홈페이지에서 8월 20일까지 전시회 사전등록을 마치면 전시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세한 안내는 전시회 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K-PRINT 2024 사무국(전화. (02)551-0102) 또는 홈페이지(www.kprint.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오뚜기

2023년 포장재 사용량 5.2%↓ ·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비 1.4%↓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난해 오뚜기의 포장재 사용량과 수질오염 배출량, 식품 폐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환경지표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뚜기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오뚜기가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금속캔, 유리병, 종이류 등 포장재 사용량은 3만8217t으로 전년에 비해 5.2% 줄었다.

오뚜기 국내 사업장 및 생산 법인의 식품 폐기 총량도 226.69t으로 전년에 비해 1.2% 감소했다. 폐기비율은 0.03%로 전년 0.02%에서 0.01%p 줄었다.

동식물성잔재물 등 일반폐기물,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

물 등 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2만9869.49t으로 전년에 비해 5.5% 줄었다.

오뚜기와 오뚜기라면, 조흥 등 3사의 지난해 직·간접 온실가스배출량(Scope1+2) 총합은 15만 644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로 전년 14만8551tCO₂eq 대비 1.4% 줄었다.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 수송물류 등 공급망 관리 과정에 발생하는 등 3개사의 지난해 Scope3 배출량은 426만6525 tCO₂eq로 집계됐다.

오뚜기는 지난해 사업장 외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관리를 목표로 Scope3 배출량을 산출했다.

3사의 지난해 수질오염 배출량은 65.13t(톤)으로 전년 84.49t에서 22.9% 줄었다.

오뚜기의 지난해 친환경투자금액은 26억4400만원이다.

오뚜기는 전사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 모든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환경을 고려해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과정(Life Cycle) 관점을 적용했다. 'Life Cycle Thinking'을 기반으로 자사 마크인 6개의 오뚜기 Eco 엠블럼을 개발하고 각 분야에서의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해 환경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된 인권영향평가 등이 반영됐다. 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6대 핵심 주제에 대한 전략, 성과·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관리 △지속가능한 포장 △인권 경영 △식품 안전 및 품질 △윤리 및 준법 경영 등이 포함됐다.

오뚜기는 사업 활동에서의 잠재적인 인권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며, 인권 경영 강화에도 나섰다"고 강조했다.

오투기 센터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배포해 자가진단을 실시했으며 각 영역별 지표 준수율을 산정해 인권 관리 리스크를 파악했다.

공급망 전체에 적용 가능한 ESG원칙을 제정 및 보급해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오투기 관계자는 “오투기는 원료 조달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고려해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의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환경적 영향 최소화 및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신규 평가 및 진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

2023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59.5% 줄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발간



▲ 현대홈쇼핑이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지

현대홈쇼핑이 지난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59.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홈쇼핑이 최근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상품 포장을 위해 사용한 플라스틱 사용량은 35.3t으로 전년대비 59.5% 줄었다.

종이 포장재 사용량은 938t으로 3.8% 증가했다.

본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배출량은 133t으로 전년대비 28.8% 줄었다.

재활용한 폐기물량은 114t으로 8% 감소했다.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폐기물 배출량은 214t으로 52.8% 증가했다. 재활용한 폐기물량은 207t으로 51% 늘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간접 온실가스배출량(Scope1+2+3)은 4397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국내 사업장 에너지사용량은 80TJ(테라줄)로 전년대비 2.8% 늘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태양광 0.009TJ로 전체의 0.01%에 불과했다.

용수취수량은 4만1159m³으로 전년대비 4.2% 늘었다. 용수재활용량은 7895m³로 14.9% 줄었다.

올해로 세 번째 발간되는 현대홈쇼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GRI) 스탠드 2021'에 따라 작성됐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별 성과와 향후 계획이 포함됐다.

환경(E) 분야에서는 현대홈쇼핑의 친환경 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임직원의 출퇴근 및 상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기타간접배출량을 측정 및 수록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취수 등에 대한 감축 목표치, 지속가능한 제품 판매 및 환경 캠페인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사회(S) 분야에서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현대홈쇼핑의 인권경영방침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1년에 공시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3년 연속 100% 수행한 내용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배당정책이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추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올해 고용노동부의 일 경험 인턴십,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해 한층 더 강화된 ESG 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환경부와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제품 출시 예정

롯데칠성음료가 식품용기를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 서울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정책추진 노력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품질 모니터링 ▲재생원료 품질향상 노력 등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기존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하던 '아이시스 8.0 ECO' 1.5L 제품을 비롯해 '칠성사이다 무라벨' 300mL 제품까지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하여 출시할 계획이다.

먹는 물과 음료 포장재에 주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된 무색 페트병은 분리배출, 파쇄,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 후 다시 페트병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용기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 사용 후 다시 무색 페트병으로 재생산되면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을 통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100주년 디자인 스페셜 에디션 출시

크리넥스의 부드러움을 꽃으로 구현한 디자인 적용



▲ 유한킴벌리가 출시한 크리넥스 100주년 디자인 스페셜 에디션

유한킴벌리는 크리넥스 100주년을 기념해 일러스트 작가 사키(saki)와 협업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페셜 에디션은 크리넥스의 부드러움을 따뜻한 색감의 꽃으로 구현했으며 실크소프트 미용티슈와 실키소프트 물티슈로 만나볼 수 있다.

크리넥스는 제품의 환경성

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 크리넥스 화장지와 미용티슈는 천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공급되는 100% 천연펄프를 사용하며,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을 위해 포장재에는 재생 플라스틱을 30% 이상 적용한다.

미용티슈 일부 제품의 토출구 플라스틱 필름을 종이로 대체해 플라스틱 저감은 물론 재활용성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생분해성 또는 종이 원단을 사용한 물티슈 제품을 확대하고, 캡에는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 플라스틱 PCR을 80% 적용하는 등 가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왔다.

두루마리 화장지에는 합지용 풀 대신 먹는 물 수질 기준(환경부)에 적합한 물을 활용해 여러 겹의 화장지를 결합하는 '아쿠아프레시' 공법을 순차 적용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14톤의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소나무(중부지방 20년산 기준) 약 80394여 그루의 연간 탄소흡수량에 해당한다. 유한킴벌리는 오는 9월까지 김천공장에서 생산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전개 중이다. 위생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크리넥스 해피클린 캠페인'을 통해 위생 교육과 제품 기부를 지속해오고 있다. 녹색 인프라 취약 지역에 도시숲 조성을 돕고자 크리넥스 밤부케어 화장지 매출의 1%를 기부하고 있다.

크리넥스가 산업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제품개발 역량과 제조 경쟁력을 빼

놓을 수 없다. 자체 R&D 센터인 유한킴벌리 서초연구소는 5년 이상의 제품 혁신 로드맵을 갖추고 한국 소비자를 위한 맞춤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사 티슈 전문 제조 사업장인 김천공장의 신설 첨단 티슈설비를 성공적으로 가동하여, 연간 20만 톤의 티슈 원단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과 국내 화장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담당자는 "생활, 건강, 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한다는 기업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과 삶의 질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선행적인 노력은 국내 가정용품 산업의 경쟁력 재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진제약

멀티PTP 개별 포장 방식 적용한 '하루엔진 마그비타 썬' 출시

"공기 접촉과 정제 간 간섭을 최소화해 오랜 기간 안전한 보관 가능"



▲ 삼진제약, 위시헬스 '하루엔진 마그비타 썬'

삼진제약 위시헬시가 '하루엔진'의 새로운 시리즈인 '하루엔진 마그비타 썬'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위시헬시는 '하루엔진 마그비타 썬'이 ▲비타민 B1, B2, B6, B12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5,000% 함유 ▲마그네슘 350mg(111%)이 함유 ▲비타민 C 500mg(500%)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편 비타민은 세계적인 원료전문기업 'DSM 社'의 원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루엔진 마그비타 썬'은 기존 '하루엔진' 시리즈처럼 멀티PTP 개별 포장 방식이 적용되어 빛과 열, 수분에 약한 비타민 성분을 보호하고 공기 접촉과 정제 간 간섭을 최소화하여 오랜 기간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다.

기존 PTP보다 사이즈가 38% 작아져 휴대성도 더욱 좋아졌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삼진제약 위시헬스 관계자는 "하루엔진 마그비타 썬은 비타민을 각각 따로 챙겨먹기 번거롭던 고객들을 위해 고함량, 고품질의 비타민 미네랄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출시한 제품"이라며 "하루엔진 마그비타 썬으로 액티브한 삶을 즐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토닉스

초음파 센서 UTR 시리즈 출시

물체 검출 · 거리 측정 센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 오토닉스가 초음파 센서 UTR 시리즈를 출시했다.

초음파 센서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 송신과 수신 시간차를 측정하여 물체를 검출하거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다.

이 센서는 초음파 특성 덕분에 일반 포토센서로 검출하기 까다로운 투명체, 금속체, 분말, 액체 등을 검출할 수 있다.

검출체의 광택, 색상, 무늬, 질감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오토닉스의 UTR 시리즈는 이러한 초음파 특성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재질 및 표면에 대한 정확한 검출과 측정을 실현함은 물론 최대 8m 측정 거리를 지원하여 물리적으로 검출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초음파 센서는 공기를 매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검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UTR 시리즈는 센서 내부의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환경 온도를 추정하는 온도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 주위 온도 변화에 대해 큰 영향이 없는 안정적인 검출을 지원한다. 또한 외란 및 노이즈 제거를 통해 측정의 정밀도를 향상했다.

검출폭전환, 측정필터, 온도 보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최적의 검출 성능을 제공한다. UTR 시리즈는 IO-Link 통신형, 디지털, 아날로그 동시 출력 모델을 지원한다. 표시부가 있는 모델의 경우, 현재 값 및 파라미터 설정 값을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며 표시부가 없는 모델은 프로그래밍 유닛(UT-P)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모델은 부식에 강한 SUS316L 재질을 적용하여 식음료 및 제약 산업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UTR 시리즈는 물체 검출, 공간 측정, 끊어짐 검출, 투명체 검출, 충돌 방지, 늘어짐 측정 등 다양한 응용 사례에 활용될 수 있다.



▲ 오토닉스 초음파센서 UTR 시리즈

물체 검출

검출체의 유/무를 감지할 수 있다. 검출체는 투명체, 색상, 재질, 모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간 측정

주차면의 만차 및 공차를 측정하여 차량 유/무 검출과 주차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끊어짐 검출

필름, 펄프, 직물 등의 검출체의 끊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투명체 검출

유리 재질 검출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충돌 방지

이동 로봇 및 AGV 등에 설치하여 주행 시 물체의 유/무 혹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늘어짐 측정

타이어나 직물 가공 등에서 루프 늘어짐이나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SRT

특실에 '5종 견과류' 간식 제공...친환경 포장

승차권 모양한 물티슈와 라벨없는 페트 사용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새로운 SRT 특실 서비스 물품으로 견과류 간식 등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특실 물품은 기존보다 알차게 구성한 5종 견과류 간식으로 맛의 풍미를 높였다.

승차권 모양을 형상화한 물티슈를 함께 제공해 기차여행의 분위기와 특색을 살렸다. 포장은 SRT 운행노선 중 대표 여행지의 이미지를 계절별로 표현했다.

특히 포장상자는 국제 산림관리단체의 FSC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으며 생수도 라벨이 없는 투명 페트를 사용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특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SR은 지난 27일 SRT 특실 서비스로 5종 견과류 간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